

# 성명서

## — 배합사료 가격 인상추진 철회요청 —

최근 배합사료업체에서 배합사료 가격을 5% 정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양축가들은 절망감과 함께 이 땅에서 축산업을 생업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하다.

더우기 '95년 부터 축산물의 전면 개방과 불안정한 경영여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야말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한 시점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양축가의 실상을 외면한채 흑자경영을 일관해 온 배합사료업체들이 영리에만 급급한 졸속한 발상이 아닐 수 없어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

그동안 사료의 제조경비, 원료비, 물류비, 일반관리비, 환율 등이 인상되었다고 하나, 이를 모두 양축가에게 전가하여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큰 잘못이며 이는 경영개선, 제도개선 등을 통해 흡수되어야 할 문제로, 이러한 노력없이 가격인상이라는 안이한 방법만을 택한다면 축산물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양축가와 배합사료업체가 공멸을 자초할 뿐이다.

정부에서도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적용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료 가격인상을 묵인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면 시장 개방을 목전에 두고 우리 양축가, 정부, 관련업계, 학계와 합심하여 생산비 인하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축산업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다소 어려움이 내재해 있더라도 함께 동참하여 우리 축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존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 추진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간곡한 요구가 무시될 경우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아울러 밝힌다.

1994. 10. 26

사 단 법 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사 단 법 인    대한양돈협회  
사 단 법 인    대한양계협회